

## 오테마에 거리에 남아 있는 에도시대 돌 쌓는 방법

### 「보이는 곳은 아름답게」 ~허세 문화~

오테마에 거리 확장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로 인해, 에도시대 석조 수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석조 수로의 돌 쌓는 방법은, 길에서 보이는 부분은 정성껏 만들어져 있지만, 잘 보이지 않는 도랑 안이나 도로 쪽 부분은,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. 「무사는 굶고도 먹은 체 한다.(속담)」까지는 아니지만, 허세를 부리는 일면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.

석조 수로 밑을 파 내려갔더니, 지표면하 약 1.1m 깊이에서 마구 파 내려간 큰 도랑이 발견되었습니다. 이는, 성하마을 조성 당시 배수와 구획을 나누기 위해 만든 것으로, 석조 수로와 같이 도로를 따라 존재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것들을 볼 때, 오테마에 거리는 마쓰에 성하마을이 생긴 에도시대 초기에 정비되어,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로 폭이 변하지 않고 계속 이용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마쓰에 성하마을을 만든 호리오씨는 용맹한 장수임과 동시에, 우수한 도시 계획가였던 것 같습니다.